

2021 년 12 월 31 일 “(송구영신예배) 선한 일에 애쓰는 성도” (히 10:24, 창 2:15)

개인주의적으로 심화되는 이 시대 풍조에 대하여 우리가 선한 일에 적극적인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성경에서 약속하신 참 인간 됨의 부요한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1] 선한 일은 삶의 본질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함입니다(사 43:7). 사람을 통해 주님의 진선미가 드러나면 평화(shalom)를 이루고 창조의 궁극적 목적을 향해 정진하게 될 것입니다.

(1) 창 2:15 “사람을(아담을) 데려 다가 에덴 동산(삶의 자리)에 두시고”

두시고 = ‘쉬다’, ‘정착하다’ → 안식하게 하셨다

참고: 하나님이 제 7 일에 가지신 안식은(창 2:2) 아담이 에덴에서 안식을 받은 것과 동의어.

하나님의 안식은 피조계가 그분의 소유이고 통치의 대상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담 또한 에덴의 존재가 ‘그의 소유이며’(한 나무는 제외, 창 2:16-17) ‘다스리는’ 대상입니다. 아담은 에덴에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것입니다.

(2)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가꾸고 지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뜻이 드러나게 하시는 일을 말합니다. 따라서 창 2:15 말씀은 사람의 존재의 의미와 역할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 적용

육신이 연약하여도 나의 삶의 자리에서 사람들을 기도와 격려로 돌본다면 선한 일입니다.

교회를 가꾸고 지키는 일은 단체가 잘 되자는 의미를 넘어 교회(성도)의 존엄성과 존재감을 가꾸고 지킴으로써 주님의 창조의 목적을 성취하는 길입니다.

선한 일을 감당하려면 나를 존귀하게 여기셔서 맡기신 삶을 기억하며 주님을 사랑하고 따라야 합니다. 아담은 불순종하여 주님에 대한 사랑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순종을 배우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여 선한 일의 목적을 이룰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생각해 봅시다>

1. 창 2:15 을 볼 때, 현재 나의 삶의 자리는 아담을 에덴에 두신 것과 병행하여 생각할 때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2. 내가 맡아서 돌볼(가꾸고 지키) 일들의 목록을 만들어 보고 그중 한두가지를 나누어 주세요.